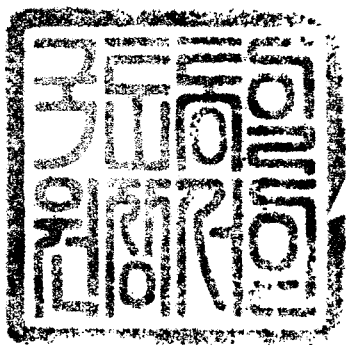


# 北韓의 文學藝術

金 永 圭 (國土統一院 研究官)



國土統一院 統一研修院

## 차 례

1. 머리말	3
2. 북한의 문학예술정책	5
3. 作品 素材選定 및 표현의 기본요소	8
4. 문학예술관계 조직 및 활동	14
5. 분야별 문학예술 실태	21
가. 文 學	21
나. 音樂 및 歌劇	30
다. 舞 踊	36
라. 美 術	40
마. 映畫 및 演劇	47
6. 맺음말	53

### 〈참고자료〉

1. 주요공연단체 및 시설현황
2. 기관 단체별 인물현황
3. 조선화 畫論(도표)
4.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 목차

## 1. 머리말

第6共和國 출범이후 各界의 統一論議가 매우 활발해졌고 지난해 7월 대통령의 7.7선언 발표이후 여러분야에서 對北提議가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있었던 문학예술분야의 주요 제의는 지난해 7월1일 서독에 있는 음악가 윤이상씨의 「南北音樂大祝典」을 시작으로 7월2일 「민족문학작가회의」의 「남북작가회담」 및 「南北文學人大會」 제의, 7월6일에는 韓國藝總의 「民族統一을 위한 남북예술대축전」 개최제의, 8월 24일에는 한국미술협회의 「남북미술교류」 등의 제의가 있었다.

이처럼 문학예술계의 움직임이 매우 활발한데, 이런 움직임은 民族의 同質性을 회복하고 民族和음을 도모하려는 통일접근방법에서 볼때는 매우 고무적이고 또한 바람직스러운 현상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 문학예술계의 이와같은 제의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윤이상씨의 提議에 대

해서만 적극적인 호응을 보여왔고, 8개월이 지나 최근에 와서 「민족문학작가회의」가 제의한 「남북작가회담」외의 다른 제의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북한에 윤이상연구소가 설치되어 있고 빈번히 北韓을 訪問, 북한의 입장을 지지해온 윤이상씨는 믿을수 있으며, 또한 國內에서 民衆運動을 벌이고 있는 민족문학작가회의 등 일부 특정 단체만이 자기들 의도대로 될수 있는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국내 문학예술계의 활발한 對北提議와 북한의 문학예술에 대한 관심증대는 매우 바람직스러운 것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한가지 우려되는 바는 문학예술계의 의욕에 찬 움직임과는 달리 북한의 문학예술 실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미흡하고 북한의 문학예술이나 문학예술인들을 우리의 입장에서 인식한 나머지 善意의 論議와 提議가 자칫 北韓의 高次元的 策략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관점에서 북한의 문학예술 실태를 綜合的

으로 정리, 객관적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이 글의 목적이 있음을 밝혀둔다.

## 2. 북한의 문학예술정책

국토분단 40여년을 통해 南北間에는 서로 달라진 部門이 수없이 많으나 달라질 것 같지 않은 文學藝術分野에서도 우리의 기존관념으로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근본적 차이가 많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北韓의 文藝政策을 論하기에 앞서 먼저 文學과 藝術에 관한 金日成, 金正日의 관심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한마디로 표현해 김일성, 김정일은 세계 그 어느 統治者보다 이 부문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김일성과 김정일이 문학예술에 대한 타고난 재질이 있고 이 부문에 대한 깊은 소양을 갖추었기 때문에 政策的 관심을 높이고 있는것 같지는 않다.

으로 정리, 객관적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이 글의 목적이 있음을 밝혀둔다.

## 2. 북한의 문학예술정책

국토분단 40여년을 통해 南北間에는 서로 달라진 部門이 수없이 많으나 달라질 것 같지 않은 文學藝術分野에서도 우리의 기존관념으로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근본적 차이가 많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北韓의 文藝政策을 論하기에 앞서 먼저 文學과 藝術에 관한 金日成, 金正日의 관심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한마디로 표현해 김일성, 김정일은 세계 그 어느 統治者보다 이 부문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김일성과 김정일이 문학예술에 대한 타고난 재질이 있고 이 부문에 대한 깊은 소양을 갖추었기 때문에 政策的 관심을 높이고 있는것 같지는 않다.

金日成은 그의 말대로라면 어릴때부터 빨치산 생활을 해왔는데 빨치산 생활을 하면서 文學藝術에 대한 관심과 소양을 기를수는 없었을 것이고 金正日도 그의 성장과정을 통해 볼때 특별히 이 부분에 관심을 보일만한 계기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 部門에 관심을 높이고 있는 것은 文學과 藝術을 이해하고 좋아하기 때문 이라기 보다는 다분히 이것을 정책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측면에서 좋아하는척 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고 그 이유는 문학예술이 지니는 本質이 사람의 감정을 충동시키고 심성을 자극하여 정서를 보다 높은 美的 경지로 끌어 올리는데 있다는 점을 일찌기 간파, 이를 자신의 정권유지에 이용하겠다는데 있었다고 생각된다.

사실 金日成이 44년이 넘게 1人獨裁體制를 유지해 오면서도 外形적으로나마 안정된 政治基盤을 구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가장 큰 요인은 金日成을 신격화시킨 偶像化 정책의 소산이라 할 수 있고, 偶像化 정책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文學과 藝術을 적절히 이용했다는 데 있는

것이다.

현재 北韓이 추진하고 있는 文藝政策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체제옹호 및 합리화를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문학예술을 이용한다는데 두고 있고 예술창작활동의 구체적 목표로서는 ① 黨政策 구현 및 선전, 찬양 ② 金日成 및 그 家系 우상화 ③ 共產主義的 人間改造 ④ 政治思想敎養 ⑤ 勞力動員 및 노동의욕고취 등 5개부문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북한 문예정책의 基調는 1962년 11월 金日成이 「作家·藝術人들에게」라는 敎示를 통해 밝힌 “文學藝術은 절대로 革命의 利益과 黨의 路線을 떠나서는 안되며 자본계급의 취미와 비위에 맞는 요소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오직 당의 노선과 정책에 철두철미 의거하는 문학예술만이 진정으로 근로대중을 共產主義 精神으로 敎養하는 강력한 무기로 될 수 있다”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이 교시내용을 요약하면 純粹藝術이 指向하는 「自然과 人間을 사랑하는 애정이나 감정등 정서적



인 면을 강조하는 것」은 資本階級の 취미와 비위에 맞는 것이므로 북한의 문학예술은 이를 배격해야하고 “政治的 목적달성을 위한 비타협적이고 투쟁적인 면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예술을 가리켜 「이데올로기 예술」이니 「目的藝術」이니 「政治藝術」이니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고 또한 「혁명예술」이니 「투쟁예술」이니 하는 것으로도 표현되고 있다.

### 3. 作品 素材選定 및 표현의 기본요소

북한에서 文學藝術作品的 소재선정이나 표현의 기본요소는 레닌-스탈린으로 부터 출전된 社會主義的 寫實主義(Socialist Realism)에 근원을 두고 있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란 1932년 소련공산당 중앙위에 의해 제창된 것으로 그후 1934년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는바 그 定義는 다음과 같다.

1934년 제1차 작가동맹대회에서 「주다노프」黨

인 면을 강조하는 것」은 資本階級の 취미와 비위에 맞는 것이므로 북한의 문학예술은 이를 배격해야하고 “政治的 목적달성을 위한 비타협적이고 투쟁적인 면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예술을 가리켜 「이데올로기 예술」이니 「目的藝術」이니 「政治藝術」이니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고 또한 「혁명예술」이니 「투쟁 예술」이니 하는 것으로도 표현되고 있다.

### 3. 作品 素材選定 및 표현의 기본요소

북한에서 文學藝術作品的 소재선정이나 표현의 기본요소는 레닌-스탈린으로 부터 출전된 社會主義的 寫實主義(Socialist Realism)에 근원을 두고 있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란 1932년 소련공산당 중앙위에 의해 제창된 것으로 그후 1934년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는바 그 定義는 다음과 같다.

1934년 제1차 작가동맹대회에서 「주다노프」黨

서기장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 대해 “革命的 發展의 입장에서 생활을 묘사하고 사회주의적 기초위에 黨과 노동계급의 모든 생활과 투쟁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했고, 「스탈린」은 “人間魂의 技師로서 人民에게 봉사하고 레닌-스탈린黨 事業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했으며, 1959년 소련공산당 제21차 전당대회에서 「흐루시초프」는 “共產主義的 道德性을 강조하고 共產黨에 대한 정열적 헌신성을 제공하며 노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敵에 대한 비타협성의 새로운 人間型을 創造하는 것”이라고 했고, 北韓의 金昌滿은 “사물이 發展하는 과정에서 새것이 창조되고 낡은 것이 소멸되는 과정을 묘사하는 것 또는 人民의 노력적 투쟁과 합류되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였다.

이상 주요 인물의 정의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혁명적이고 투쟁적이며 비타협적인 創造活動을 기본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따라서 社會主義的 寫實主義에서의 작품 소재는 現實性, 革命性, 社會主義的 內容, 生産의 本

質과 영웅적 인물을 묘사하는 것에 두고 있고 作品構成은 혁명적 낙관주의와 집단적 영웅주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作品의 테마전개는 긍정적 상황과 구체적 사실을 묘사하고 작품의 주인공은 노동자, 농민, 사무원, 기사, 교원, 인민군등을 형상화하는 사상적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基本要素는 원래 ① 黨性 ② 계급성 ③ 人民性 등 3개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나 北韓은 여기에다 비타협성을 추가하여 4個要素로 구성하고 있음이 특징적이다.

黨性이란 黨의 路線과 政策에 입각하여 作品의 素材를 선택하고 사회발전과 生活의 本質을 당정책과 연관하여 묘사하고 반영한다는 것이고, 階級性이란 노동계급의 영웅적 투쟁을 주된 素材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며, 人民性은 人民을 형상화하고 인민에게 쉽게 이해되고 인민의 이익과 요구에 순응해서 人民大衆의 것으로 발전시켜, 인민을 혁명과 건설에 끌기토록 한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추가하고 있는 非妥協性 原則이란 이

상 열거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기본 3원칙 이외의 여하한 것이라도 배격해야한다는 원칙으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원칙을 준수키 위해 추가시킨 原則이다.

모든 社會分野가 철저히 통제되고 계획화되어 있는 북한에서 문학예술인들이 자신의 個性이나 理念을 구현하기 위해 창작활동을 할수 없다는 것은 하나의 상식이겠지마는 이상과 같이 作品의 소재선정으로 부터 表現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인 틀에 얽매이지 않을 수 없으므로 북한의 文學藝術人들은 主觀과 個性이 없는 명분상의 존재에 불과한 것이다.

'70年代이후 북한의 文藝政策은 약간 보완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두가지의 새로운 理論을 적용토록 한 것과 다른 하나는 예술의 大衆化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北韓이 말하는 두가지 新理論의 하나는 「문학예술에서의 종자론」인데 ‘種子’란 한마디로 표현하면 文學·藝術作品에서 主題 및 素材를 결정하는 중심사상을 의미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思想’은 金日成革命思想, 주체사상, 黨의 政策과 路線, 金日成에 대한 충성심을 말하는 것이다.

북한은 종전의 社會主義的 寫實主義에 이 種子論을 추가한 것이 文學예술의 기본원칙이라고 말하고 있고 심지어는 “金日成主義의 실천적 美學”으로까지 표현하고 있다.

新이론 중 두번째 것은 「主體文藝理論」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主體思想에 기초하여 정립한 文藝理論으로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문학예술에 보다 폭넓게, 깊게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주체문예이론」에 대한 북한측의 설명을 보면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인민의 이익과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도록 하는 표현방법, 즉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표현방법을 적용하는 이론”이라는 것이다.

이와같은 新理論에 따라 실천되고 있는 것이 金日成과 그 家系에 대한 우상화, 신격화 작품 생산인데 여기에서 한가지 주목되는 것은 金日成은 “絶對的 存在”이기 때문에 어느 한 個人의 能力

으로서는 形象化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集體的으로 창작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金日成을 형상화 하기 위해 구성된 창작단으로서는 詩, 小說을 전문적으로 창작하는 「4.15 創作團」이 있고 歌劇, 시나리오를 전문적으로 창작하는 「백두산 창작단」이 있는데다 金日成 형상화작품을 전용 공연하기 위해 「피바다 가극단」, 「만수대 예술단」이 결성되었으며 「수령형상문학」이라는 하나의 특이한 장르까지 등장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 北韓에서 말하는 「藝術의 大衆化」에 대해 개략적으로 언급한다면 “예술발전은 大衆의 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근로인민대중을 藝術人의 수준으로 배양, 육성키 위해 문학예술 수준을 一般化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방침은 社會主義憲法에도 명시하고 있는데 헌법 45조에 의하면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을 文藝活動에 널리 참가시킨다”고 명시하고 있고, 헌법 68조에는 “공민은 집단주의 정신을 높이 발양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예술의 대중화」 방침에 따라 북한에서는 「群衆藝術」이니 「集體藝術」이니 「집단예술」이니 하는 형태의 매미드 마스게임, 군중집회식 행사 등이 등장했고, 각종 협동농장, 공장, 기업소 단위에 「예술소조」, 「예술선전대」가 조직되어 노동자들의 작업 휴식시간을 틈나 노력선동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4. 문학 예술관계 조직 및 활동

북한에서의 문예관계 組織의 최고상층기관은 「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이고, 당내 文化藝術部는 선전선동부를 지원하는 실무부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불과하다 하겠다.

즉 선전선동부에서는 문학예술작품의 主題選定, 創作方向 및 量등 政策的 기본사항을 결정하고 문화예술부에서는 예술인 관리, 창작기법 및 이론적용 등 전문적인 사항과 행정적 지원업무 등을 담당하며 政務院 산하에 있는 文化藝術部는 모든 행정실부를 수행할 뿐이다.



또한 「예술의 대중화」 방침에 따라 북한에서는 「群衆藝術」이니 「集體藝術」이니 「집단예술」이니 하는 형태의 매미드 마스게임, 군중집회식 행사 등이 등장했고, 각종 협동농장, 공장, 기업소 단위에 「예술소조」, 「예술선전대」가 조직되어 노동자들의 작업 휴식시간을 틈나 노력선동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4. 문학 예술관계 조직 및 활동

북한에서의 문예관계 組織의 최고상층기관은 「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이고, 당내 文化藝術部는 선전선동부를 지원하는 실무부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불과하다 하겠다.

즉 선전선동부에서는 문학예술작품의 主題選定, 創作方向 및 量등 政策的 기본사항을 결정하고 문화예술부에서는 예술인 관리, 창작기법 및 이론적용 등 전문적인 사항과 행정적 지원업무 등을 담당하며 政務院 산하에 있는 文化藝術部는 모든 행정실부를 수행할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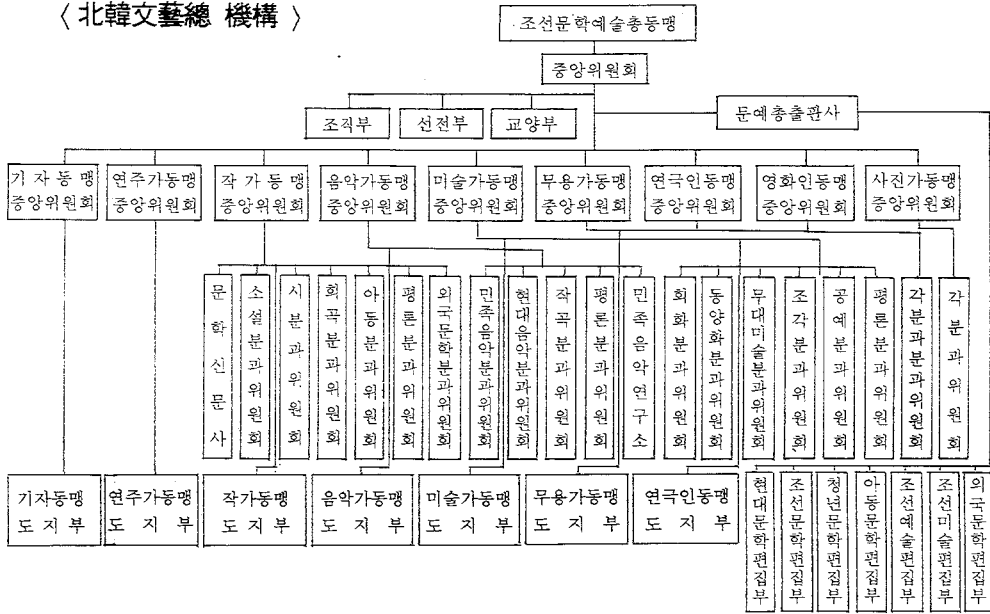
북한에서 문화예술부문을 총괄하는 기관이「로동당」선전선동부라는 사실은 北韓의 藝術이 순수 예술이기 이전에 당의 방침을 선전·선동하는 「선전예술」, 「선동예술」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실제로도 많은 학자, 전문가들은 북한의 예술을 「선전예술」이니 「선동예술」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北韓社會에서 소위 藝術人이라 불리우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政務院 文化藝術部 산하의 일개 사회단체인 「조선문학예술총동맹」(文藝總)에 가입해야만 되고 이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자는 藝術人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다.

「조선문학예술총동맹」에는 「作家同盟」, 「記者同盟」, 「音樂家同盟」, 「연주가동맹」, 「미술가동맹」, 「부용가동맹」, 「연극인동맹」, 「영화인동맹」, 「사진가동맹」 등 9개 산하단체가 있고 이들 산하단체 밑에 각 직능별 分科委員會가 조직되어 있으며 各道級에 支部가 설치되어 있다.(표 참조)

北韓의 「文藝總」산하단체에는 한국 「藝總」산하에 있는 「建築家協會」, 「演藝人協會」가 없는 대신

〈北韓文藝總 機構〉



「記者同盟」이 포함되어 있고 음악부문에서 우리는 國樂이 독립분야로 되어있는데 반해 北韓에서는 음악가와 연주가를 구분하고 있다.

북한의 藝術家 양성기관으로서는 平壤文學大學, 平壤美術大學을 비롯하여 音樂大學, 演劇映畫大學 등 4년제 대학이 있고 평양무용학교, 2.16 예술전문학교, 7.18고등예술전문학교, 조형예술학교 등이 있다.

북한의 藝術·技能人 양성기관중 한가지 특이한 것은 평양교예학교를 들수 있는데 이 학교는 그들이 자랑하는 바와 같이 전세계에서 오직 하나밖에 없는 서커스요원 양성기관으로서 1972년도에 설립, 16여년간 150명이 넘는 서커스요원을 양성한 실적을 올리고 있다 한다.

북한이 서커스부문에 이토록 관심을 보인 결과 서커스 공연수준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평양시에는 「평양교예극장」이라는 서커스 전문공연장을 마련, 상시 공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北韓社會에서 文學·藝術家로서 활동을 하려면

만드시 이들 예술분야 교육기관을 수료해야하고, 수료한 후에도 반드시 문학예술분야 職場에 배치 받아야만 된다는 제한성이 있다.

그외에 북한에서 文學藝術人이 되는 길은 전국 문예작품 현상모집이나 국가미술전람회, 전국 음악 미술경연대회 등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면 가능한데, 이 경우도 직장을 문학예술부문 직장으로 배치받아야만 가능한 것이다.

藝術家가 되는 길이 이토록 어렵고 특별히 선발되지 않으면 될수 없다는 것은 北韓社會에서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없고 私有財産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職業은 당국의 中央集權的 계획에 따라 배정해주는 것이므로 個人의 소양과 희망은 무시되고 당국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예술가라고 해서 자신이 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당국에 의해 만들어지고, 길들여지는 것이므로 우리의 개념에서 보면 北韓의 藝術人은 한사람의 技能人 또는 한사람의 숙련공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예술인들은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운 創作活動을 할수 없는 입장인데,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에서는 制度的으로 문학예술총동맹(문예총)에 가입되지 않으면 작가, 예술가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다 또 文藝總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自由意思에 따라 創作活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로동당」 선전선동부에서 지시된 主題를 정한기간, 정한분량, 허가받은 스토리에 따라 작품을 형성해야 하므로 예술가, 작가로서의 창작기능을 상실하는 것이다.

또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창작된 작품도 政務院 出版總局의 엄격한 검열을 거쳐 출판되어야만 하나의 작품으로서 완성되는 것인데, 출판 자체를 철저히 통제하기 때문에 黨의 指示, 黨의 方針을 벗어난 작품이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다.

북한의 作家, 藝術家라고 해서 마음속에 體制 반항적이고 소위 부정적 견해를 가진 자가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설령 이런 생각을 가진 자가 있다고 하

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이런 作品을 쓸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心的이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며 간혹 자기 나름대로의 作品을 창작했다 하더라도 이 사실을 극비에 부쳐야하는 위험부담을 지녀야 한다.

앞으로 祖國이 統一되거나 南北間에 文化藝術人 교류가 본격화 되었을 시 이들 숨겨진 作品, 그야말로 작품다운 작품이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특히 北韓에서는 자신의 뜻에 따라 순수한 藝術作品을 창작하려는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불가능 한데 그 이유는 북한은 소유제도, 市場機能 不在 등으로 當局이 지정해준 職場에 나가지 않는 한 生存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일하지 않으면 먹지말라”라는 黨의 방침에 따라 職場에 나가야만 식량배급을 받을 수 있고 또한 무단결근, 지각, 조퇴 등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 식량배급을 공제하고 있는데다 個人이 經濟活動을 통해 생활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길이라고는 전혀 없다는 사실이 북한 예술인

들의 自由로운 創作活動을 근원적으로 制限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가지 살펴봐야 할일은 북한의 社會主義憲法 제60조에 의하면 “공민은 科學과 文學藝術活動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였고 “저작권과 발명권을 법적으로 보호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얼핏 보면 저작권과 版權 등을 인정하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財産으로서의 기능, 所得源으로서의 기능이 없으므로 이것이 생활근거로서는 될 수 없는 것이다.

## 5. 분야별 문학예술 실태

### 가. 文 學

北韓의 문학부문은 문예총 산하 作家同盟에 망라되어 있는데 작가동맹 산하단체로서는 ① 小說分科委員會 ② 詩分科委員會 ③ 희곡분과위원회 ④ 아동문학 분과위원회 ⑤ 평론분과위원회 ⑥ 外國文學分科委員會가 있고 수필분과위원회가



들의 自由로운 創作活動을 근원적으로 制限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가지 살펴봐야 할일은 북한의 社會主義憲法 제60조에 의하면 “공민은 科學과 文學藝術活動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였고 “저작권과 발명권을 법적으로 보호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얼핏 보면 저작권과 版權 등을 인정하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財産으로서의 기능, 所得源으로서의 기능이 없으므로 이것이 생활근거로서는 될 수 없는 것이다.

## 5. 분야별 문학예술 실태

### 가. 文 學

北韓의 문학부문은 문예총 산하 作家同盟에 망라되어 있는데 작가동맹 산하단체로서는 ① 小說分科委員會 ② 詩分科委員會 ③ 희곡분과위원회 ④ 아동문학 분과위원회 ⑤ 평론분과위원회 ⑥ 外國文學分科委員會가 있고 수필분과위원회가

없는 것이 우리와 다르다.

산하단체중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소설과 시부문인데 다른부분에 비해 이 부문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人民大衆과의 관계가 보다 밀접하여 金日成家系 偶像化 작업에 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이라 보여진다.

북한의 문학작품이 얼마나 金日成, 金正日 우상화에 치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최근 몇가지 움직임에서 찾아볼 수 있다.

'87년 9월 26일자 평양방송은 최근에 이르러 金正日을 찬양하는 문학작품이 3,000여편이나 창작되었는데 이들 작품을 70여종의 책으로 엮어 300만부나 출판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특히 김정일을 찬양하는 문학작품중에는 外國人들까지 金正日을 찬양하여 보내왔다는 詩를 모아 「동방의 위인 김정일」이라는 제명으로 출판하였고 북한의 詩人들이 쓴 詩를 모은 詩集 「향도의 햇살 우러러」는 全十卷이나 된다고 한다.

또한 '87년 6월 4일자 로동신문은 각지의 근로

자들이 창작한 문학작품수가 지난 6年間 무려 30만 8,500여편에 이르고 있는데 이 중에서 57편은 영화화 되었고 1만 2,600편은 各種 출판물에 수록되었으며 33편에 대해서는 「6월 4일 문학상」을 수여했다고 하였다.

'88년 7월 15일에는 金日成의 항일투쟁을 주제로 한 全 15권의 혁명역사소설 「불멸의 역사」를 창작했다고 크게 선전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위 革命의 歷史小說로 불리우는 「불멸의 역사」는 金正日의 지시에 의거, 「4.15文學創作團」에서 공동 집필하였는데 作品의 집필방향은 ① 抗日鬪爭時期의 현실반영 ② 首領의 품모와 업적을 혁명적으로 小說化 ③ 매작품들은 상호 연관성을 유지하되 주제가 뚜렷한 독립성을 지닌 것 등이다.

또한 북한의 선전매체들은 「不滅의 역사」는 歷史事實에 대한 단순한 복사가 아니라 풍부한 예술적 형상을 보여준 “수령형상 창작의 본보기”라고 극구 찬양하고 있고, 이번의 경험을 토대로 앞

으로 金日成의 解放이후 업적을 주제로 한 후속 소설을 집필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살아있는 人物을 주인공으로 大河小說을 집필한다는 자체가 세계 문학사상 찾아볼 수 없는 일이고 이러한 소설이 가장 훌륭한 작품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北韓의 文學이 어느정도에 이르렀는지 짐작케 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北韓의 문학작품은 레닌-스탈린의 社會主義的 寫實主義에 바탕을 두고 있으면서도 金日成의 항일 빨치산시기의 문학서클활동을 始原으로 한다는 이른바 “文學의 革命傳統性”을 집요하게 강조하고 있어 金日成·金正日 神格化 作業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김일성을 주제로 한 역사소설까지 집필하게 된 것은 人民大衆에게 날조된 김일성 투쟁사를 흥미롭게, 그리고 감동깊게 읽히려는 의도에서 발상된 것이라 보여지는데 우상화 작업도 이 지경에 이르면 東西古今의 그 어느 위정자도 하지 못했던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찬할만 하다.

〈不滅의 歷史 全15卷 內容〉

卷番號	卷名	執筆者	執筆內容
1	달을올렸다	김정	○김일성이 타도 제국주의동맹 결성후 길림으로 나와 활동 ○청년공산주의자의 양성과 김일성의 혁명지도 이념
2	혁명의여명	천세봉	○공산주의자와 민족주의자간의 파벌싸움에 대한 김일성의 비판
3	은하수	천세봉	○김일성이 조선혁명의 주체적 노선을 선포하는 모습
4	봉우리	석윤기	○김일성이 노동자·농민·청년학생들을 규합, 유격대 결성
5	근거지의봄	이종열	○김일성의 인민혁명 정부건설에 대한 독창적 사상
6	압록강	최학수	○김일성의 영도 예술
7	잊지못할겨울	김재한	○김일성의 광복회 결성과 투쟁
8	존엄한 전구	김병훈	○보천보전투, 무산지구 전투에서의 김일성 활동

卷番號	卷名	執筆者	執筆內容
9	두만강지구	석윤기	○갑무경비도로를 백주에 행군하는 김일성의 유격전법
10	대지는 푸르다	석윤기	○김일성 찬양(내용불상)
11	1932년		○ //
12	혈로	박유학	○ //
13	백두산기슭		○ //
14	위대한사랑		○ //
15	고난의행군		○ //

金日成에 대한 이상화 작품 생산에 못지않게 최근에는 金正日을 이상화하는 작품이 양산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朝鮮文學 '87년 5월호에는 金正日을 찬양하는 詩를 특집으로 소개하고 있는 데 주요 내용을 보면 “2.16일은 영광의 날, 축복받는 날, 향도의 빛살, 위대한 아들, 탄생하신 날, 축복받으라 주체의 조국이며, 그대의 영광 빛나고, 세계의 사랑 높거니.” 등등 구사할 수 있는 미사여구를 모두 망라하고 있고 朝鮮文學 '87년 4월호에는 「언제

나 우리르는 영상」이란 詩에서 “가장 친근하고 위대한, 그이는 우리의 찬란한 미래, 깨끗한 양심과 의리로, 영원히 받들어 모실, 인민의 지도자, 민족의 숙원도 한몸에 받아 안으시고, 인류의 염원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의 천리마를 진두에서 헤쳐가시는”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北韓이 지난해 政權樹立 40周年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벌이고 있는 「전국군중문학 현상모집」과 「3.23방송문학작품 현상모집」, 「우리교실문학 현상모집」 등에 나타난 작품들은 한결같이 김일성과 김정일을 극찬하는 내용들로 되어있다.

1988년 3월 1일부터 금년 2월말까지 1년간에 걸쳐 현상모집했다는 「3.23방송 문학작품상 경연대회」의 작품주제에 대해 북한은 ① 金日成의 革命業績과 영도의 현명성, 고매한 공산주의적 덕성을 주제로 할 것 ② 金正日의 위대성을 형상화한 작품 ③ 당의 혁명전통과 사회주의의 건설시기, 대중적 영웅주의와 집단적 혁신을 일으키는 인물을 반영한 작품 ④ 인민들의 애국심을 내용으로 한 작품 ⑤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충성심과 노

력적 위훈을 떨치고 있는 인물들의 생활을 그린 작품 ⑥ 남조선의 반미자주화 및 반파쇼민주화투쟁을 그린 작품 등 6개 부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北韓은 최근 靑少年을 대상으로 문학작품 創作活動을 크게 장려하고 있고 이들의 작품활동을 고무하기 위해 「우리교실 문학상」, 「6.4 문학상」을 제정하고 있다.

'87년 4월 15일 金日成生日을 기해 제정된 「우리교실 문학상」은 인민학생들로 부터 고등중학생에 이르기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상인데 지난 '87년 4월, 1차 현상모집한 이래 지난해까지 4만여편의 작품이 응모되었다고 하며 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6.4 문학상」은 매년 응모작품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이처럼 北韓은 기존 작가들의 문학작품을 통한 金日成家系 우상화, 黨政策 선전, 체제찬양 등을 하는 한편 인민학생으로 부터 근로인민대중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大衆으로 하여금 직접 문학작품을 창작케 함으로써 그 효과를 높이려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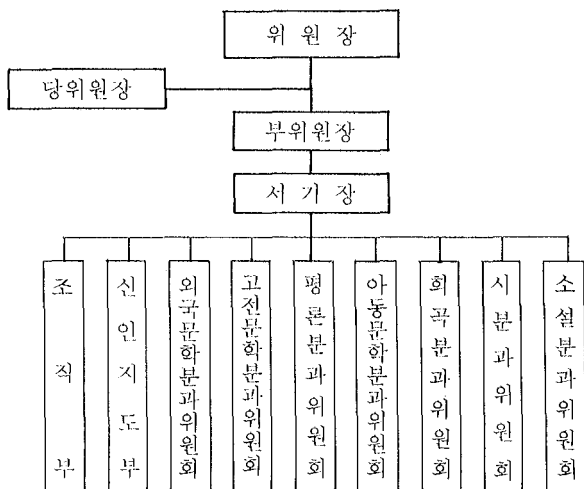


따라서 北韓의 문학은 대부분이 體制 및 金日成과 관계된 作品들이고 우리의 고전문학이나 외국의 명작들은 특별히 선정된 것에 한해 출판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나마도 북한이 이념과 체제에 맞게 새로 각색한 것이 많아 원전의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문학작품중에는 순수문학에 해당하는 것이 전혀없을까? 불행히도 수없이 발표되는 문학작품을 볼때 분단 40년이 넘도록 순수문학작품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편도 발견할 수 없다.

이같은 순수문학의 철저한 배격은 「로동당」의 문화예술정책에 기인되고 있지마는 그 보다는 순수문학작품을 “부르주아 계급에 복무하고 공산혁명에 해를 끼치는 반동문학”으로 규정, 과거 순수문학작품을 창작했던 작가를 숙청하거나 이런 작품을 모조리 수거, 폐기처분했기 때문이다.

##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 나. 音樂 및 歌劇

北韓의 音樂은 선율면에서 소련민요와 中國風의 음악양식을 따르고 있고 노래는 우리의 국민가요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북한음악의 유형은 소련에 유학했다는 작곡가 이만상의 영향이 크게 미쳤다고 하는데 기악곡의 대부분은 러시아적인 것으로 되어 있다.

북한에서 발간한 노래집의 약 50%는 민요조에 두고 있고 曲보다는 가사에 치중하고 있으며, 하모니와 리듬보다는 멜로디에 더 치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음악의 화성은 단조로와 일반대중이 따라 배우기 쉬운 템포로 되어있고 변화가 없어 지루한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성악의 창법과 발성은 「비성」중심의 발성을 주로하고 있어 고운소리이기는 하나 부자연스럽고 많은 단점을 내포하고 있다.

북한에는 우리의 대중가요와 같은 음악은 찾아볼 수 없고 영화음악의 주제가가 유행되고 있는데 이것도 원래의 가사를 부르기 보다는 변조하여 부르고 있다 한다.

北韓에서 흔히 이용되는 악기는 아코디온과 기타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피아노나 오르간 등은 대부분의 학교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며 기타악기는 교향악단이나 전문 음악인에 한해 이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우리 고유의 민속악기를 크게 이용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민족전통악기를 현대음악에 맞게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 관현악과 민속악기를 동시에 합주하는 것이 이례적이다.

북한에서 불리우는 노래의 가사는 대부분이 金日成, 金正日을 찬양하거나 北韓體制와 共產主義의 우월성, 反美·反韓적개심 고취, 노력선동 등으로 되어 있다.

北韓의 「社勞靑」기관지인 「로동청년」 '87년 2월호에 게재된 내용을 보면 '80년도로부터 '86년도까지 김일성과 김정일을 찬양하는 가요만도 370곡이 작곡되었고 매년 70여곡이 작곡되고 있다고 했으며 「朝鮮名曲 600曲集」에는 302곡이 가요이고 200곡이 피바다, 꽃파는 처녀 등 歌劇의 아리아이며, 98곡이 영화주제가인데 이중 가요 302곡에만도 金日成, 金正日을 찬양하는 것이 80%에 해당하는 240곡이라 했다.

또한 「朝鮮藝術」에 게재된 내용을 보면 '87년도에 작곡된 가요중 50%가 혁명전통을 소재로 한 것이고 20%가 노력동원 선동, 15%가 체제찬

32

양, 나머지가 기타소재를 내용으로 한 것이라 했다.

최근 北韓에서 보급되고 있는 소위 혁명전통을 주제로 한 노래는 김일성의 항일빨치산투쟁을 찬양한 「빛나라 보천보」와 영화 「월미도」의 주제가인 「나는 알았네」라고 하는데 이들 노래는 인민학생들로부터 고등중학생들간에 널리 불리어진다고 한다.

노력선동을 주제로 한 노래로는 「10대 전망의 노래」가 다시 반복, 소개되고 있고, 체제찬양 노래로서는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이 널리 불리우고 있다.

'88년도에 이르러서는 金正日花를 지정, 이를 찬양하는 「김정일화 노래」를 널리 보급하고 있는데 그 가사의 일부를 보면 “그리워 달려가는 우리의 마음처럼…… 아 붉고 붉은 충성의 김정일화”로 이어지고 있다.

北韓은 우리의 전통민요에다 김일성부자와 체제를 찬양하는 가사로 변조시켜 보급하고 있는데 실례를 들면 “서마지기 논빼미가 반달만큼 남았

네”, “네가 무슨 반달이나 초생달이 반달이지”라는 고유가사를 “그때에 해야할 일, 미루지 말고 해치우고”, “수령님 은덕으로 대풍이 들었네”로 변조했는데 이러한 가사 변조는 30여개로 “세월아 가지마라”, “황금산의 백도라지” 등 곡명까지 변조한 것도 있다.

북한은 音樂이 주민들을 선동하는 수단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라 생각하고 지금도 계속 음악에 정치성과 사상성을 강조하고 있는 현실이다.

다음 북한의 歌劇(opera)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北韓當局은 歌劇을 전체인민이 즐기고 이해하기 쉽게하기 위해 가극 창작의 기본으로 人民音樂 + 무용 + 무대미술의 종합예술로 완성하도록 강조하고 있고, 북한의 가극이 “人民的이고 民族的이며 통속적이고 혁명적 가극으로 발전되어 새로운 혁명가극시대를 열었다”고 자찬하고 있다.

북한에서 말하는 革命歌劇은 「피바다」를 시초로 창작되기 시작했는데 북한에서 5大革命歌劇이

라 불리우는 것은 「피바다」를 비롯하여 「꽃파는 처녀」, 「당의 참된 딸」, 「밀림아 이야기 하라」, 「금강산의 처녀」이고 이중 「꽃파는 처녀」는 '88년 10월 15일을 기해 700회 공연을 했다고 선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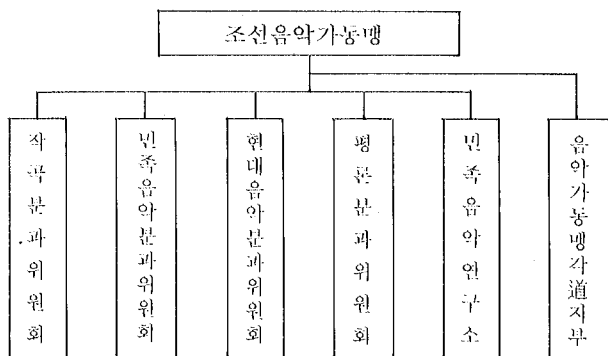
이처럼 북한에서는 革命歌劇을 계속해서 공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外國의 주요인물을 초청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5대혁명가극 중 한두개를 관람토록 하고 있다.

北韓式 오페라의 특징은 對話唱보다는 제창, 합창을 반복사용하고 있고 제창을 대화창의 대치로 이용하며, 群舞를 크게 활용하고 무대장치の大형化, 무대전환, 스크린프로세스를 리얼하게 살리는 것 등이다.

전반적으로 평가할 때 北韓式 오페라는 대스케일의 매머드 오페라이며 그나름대로 상당한 수준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 음악가들의 組織은 「朝鮮音樂家同盟」과 「朝鮮演奏家同盟」으로 양분되어 있는데 음악가 동맹에는 작곡·민족음악·현대음악·평론분과

위원회가 있고, 民族音樂研究所와 各道에 支部가 설치되어 있으며, 연주가동맹의 산하기구는 자세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민족음악연주, 현대음악연주, 교향악 등의 분과위원회와 각도지부가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 다. 舞 踊

북한의 무용은 다른 藝術分野에 비해 가장 활동이 미미한 것으로 보여진다.

무용이 하나의 독자적인 분야로 크게 발전하지



못하는 원인은 歌劇의 한 부문으로서만 주로 이용되기 때문이다.

북한에서의 무용은 音樂, 재담(코메디)과 곁들여 종합공연할 때 하나의 작은 부문으로서 참가하는 정도이므로 아동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북한의 舞踊은 우리의 고전무용 형태가 주축을 이루고 있고 발레가 존재하기는 하나 독자적인 기능을 가지기에는 너무나 미약하다.

북한의 무용형식은 육체의 아름다움, 율동미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힘과 규모, 조직을 과시하는 것이 특징적이고 무용수가 사용하는 보조기구는 군인들의 총기류, 노동자의 생산도구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무용은 전투적이고 선동적인 율동이 기본으로 되어있고 우아하고 섬세한 무용고유의 기법은 경시하는 경향이다.

最近 北韓은 전래의 民俗舞踊을 발굴하여 발전시키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는 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함남 북청지방의 민속무용인 「돈돌라리」를 발굴했다는 것이다.

北靑地方의 대표적 민속무용으로 알려진 「돈돌라리」는 한식날 여성들이 달래를 캐며 즐긴데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 「달래티 놀이」, 「달래데이」, 「달래춤」 등으로 불리어지고 있고 이 춤의 특징으로서는 율무형식에다 폐기있는 춤가락과 「좋지, 좋지」하는 후렴이 있는 것이다.

'87년초 북한의 新聞放送은 舞蹈의 과학적 표기수단과 방법을 창출한 새로운 「무용표기법」을 개발했다고 크게 보도한바 있다.

당시 북한의 선전매체들은 이 새로운 무용표기법은 72년 1월에 발의되어 15년동안 북한의 이름있는 안무가, 공훈배우들로 연구집단을 구성했고 金正日의 세심한 지도에 의해 완성되었다고 한다.

새로운 무용표기법이란 한글의 「子母音結合式」방법에 의해 표기토록 했다는 것인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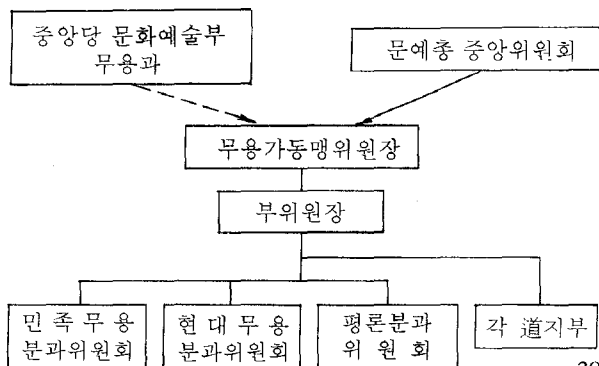
사람의 몸동작을 4가지 형태와 11가지의 놀림(動作)으로 구분하여 이를 「모음적 기능」으로 했고, 12개의 자리부호, 7개의 방향부호를 「자음적

기능」으로 한후 이들 기본부호를 임의의 형태로 결합하면 사람의 어떠한 움직임도 원만히 표기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독무(獨舞)뿐 아니라 군무(群舞)에 이르기까지 무용수들의 상관관계와 무용구도, 소도구의 이용법, 무용의 시간적 길이, 무용의 형상적 제요소들을 일목요연하게 기록할 수 있다고 하여 획기적인 표기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北韓의 舞踊家 組織은 「朝鮮舞踊家同盟」 산하에 민족무용·현대무용·평론분과위가 있고 各道에 支部가 조직되어 있다.

### 〈조선무용가동맹〉



## 라. 美 術

북한은 예술부문중에서도 美術에 대한 관심을 상당히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北韓當局이 美術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그림(회화)이 지니는 특성이 직관물이기 때문에 정치해설과 사상교양사업을 벌이는데 매우 효과적인 부문이고 金日成동상, 혁명구조물을 구축 하는데 조각분야를 활용해야 하기때문이다.

북한의 발표에 의하면 金日成의 美術에 대한 관심은 해방당시부터 깊이 지니고 있었다고 한다.

즉 金日成은 해방 이듬해인 1946년 6월 당시 北韓內의 美術家들을 불러 民族美術形式을 확립하기 위한 연구를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하며, 휴전직후인 1953년 12월에는 당시 소문난 그림으로 알려진 「금강산」을 보면서 채색이 좋지 않다느니 미적 형상화가 잘못되었다느니 하는등 전문가적 비평을 하면서 “그림은 선명하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기법연구와 현실적 요구에 맞게 그리도록 해야한다”는 지시까지 내렸다고 한다.

또한 1954년도에는 평양미술대학을 4차례나 방문, 학생들에게 지도까지 했다고 하는 등 金日成이 美術의 大家인양 선전하고 있다.

오늘날 北韓에서 創作되는 모든 美術作品은 모두가 金日成의 敎示에 따른 것이라 하는데 美術에 대한 金日成의 종합적 지시는 1966년 10월 우리의 國展에 해당되는 제9차 국가미술전람회에서 내렸다는 “우리의 美術을 民族的 形式에 社會主義的 內容을 담은 혁명적 미술로 발전시키자”라는 이름의 책자에 수록되어 있다.

이 책자에 수록된 미술에 대한 金日成의 基本方針은 모두 12가지인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美術을 民族的 形式에 社會主義的 內容을 담은 혁명적인 美術로 발전시킬 것.

② 革命의 길과 人民의 영웅적 투쟁모습을 형상화 할 것.

③ 착취사회의 본질을 실감있게 보여주어 階級 敎養에 이바지 할 것.

④ 사회주의 사회에서 누리고 있는 행복을 알

게 할 것.

⑤ 조선화를 토대로 美術을 발전시키되 그렇다고 해서 다른나라의 美術形式을 다 반대하여 朝鮮畫만 그리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즉 유화나 판화도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

⑥ 美術分野에서도 主體를 세울 것.

⑦ 朝鮮畫를 바탕으로 하되 복고주의적으로 옛날 것을 본뜨라는 것이 아니라 선명하고 간결한 전통적 화법을 연구하여 時代的 요구에 맞게 발전시켜야 한다.

⑧ 美術作品의 主題를 옳게 선정해야 하는데 좋은 주제란 “인민대중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할 수 있고 그들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힘차게 불러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림”을 말한다.

⑨ 회화뿐 아니라 영화미술, 무대미술, 산업미술, 조각, 수예, 공예와 같은 미술도 다 朝鮮的인 것을 바탕으로 하여 社會主義 건설자들의 정서와 지향에 맞게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⑩ 資本主義社會의 美術은 주관주의와 형식주의, 자연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어 人民大衆의 생

활과 동떨어져 있고 人民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

⑪ 미술가들이 당이 요구하는 작품, 人民들의 사랑을 받는 美術作品을 창작하려면 현실속에 들어가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工場과 農村에 직접 나가서 노동자 농민들과 일을 같이 해야한다.

⑫ 미술창작사업을 大衆化하여 재능있는 美術家の 후비를 많이 키워야 한다.”

북한의 美術活動은 이상의 基本方針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데 그것은 「黨과 革命」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혁명적 미술이 되어야 하고 당과 수령의 위업을 형상화 해야하는 것이며 美術의 중점 분야는 朝鮮畫와 조각에 두고 作品素材는 노동자의 작업광경, 항일혁명운동, 김일성 우상화, 제국주의 반대, 사회주의의 우월성에 둔다는 것이다.

北韓에서는 個人의 미술창작열을 북돋우고 美術作品 創作을 통해 政治思想性을 제고시킨다는 명분하에 매년 국가미술전람회를 개최하고 산업미술전람회, 출판화전람회, 선전화전람회 등을 2년

내지 3년에 한번씩 개최하고 있는데 기성화가들은 자기의 재능을 보다 높히 인정받고, 일반주민들은 화가로의 등용기회를 얻기 위해 상당히 열을 올리고 있다.

北韓의 美術家 역시 藝術분야 종사자와 마찬가지로 自身の 의사와 아이디어에 따라 作品을 창작하는 것이 아니라 當局의 지시에 따라 의무적으로 작업하는 것이므로 엄격히 말해 그 作品은 자기 개인의 작품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個人展이란 있을 수도 없고 자기작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의 활용도 금지되는 것인데 금년에 처음으로 어느 화가에게 個人展을 허용했다고 선전한 바 있다.

最近 북한은 미술가들의 個人主義的 성향을 방지하고 黨의 방침을 보다 깊게 반영시킨다는 명분하에 集體的 創作活動을 강조하고 있고 이런 연유에서 소품보다는 大作중심의 창작을 강요하고 있다 한다.

'87년 12월 17일 朝鮮中央放送報道에 의하면 金正日의 지시에 따라 지난 10年間 北韓各地에서



는 240여개의 대형벽화가 제작되었다고 하는데 이들 벽화의 평균 크기는 100여m<sup>2</sup>이고 가장 큰 벽화는 무려 800m<sup>2</sup>나 되며, 이중 대표적인 벽화로서는 평양시 「개선혁명사적지」에 설치한 높이 10.14m나 되는 「민족의 환호」, 「만경대 아침」, 「삼지연의 봄」 등이라 한다.

1986년도 북한에서 발간한 「朝鮮畫 형상이론」이라는 책자에 수록된 朝鮮畫가 지니는 화법상의 특징은 선명성, 간결성, 섬세성에 있다고 했고, 技法으로서는 선묘기법, 피움기법, 물골기법, 세화기법이 있다고 했으며 朝鮮畫 創作의 원칙적 요구로서는 ① 種子를 똑바로 쥐는 것 ② 소묘, 습작, 속사를 많이 할 것 ③ 초보단계와 원화와 의 관계를 옳게 이해할 것 ④ 예술성보다는 정치성에 우선을 둔다는 전형화의 원칙준수와 기록주의적 경향을 극복할 것 등이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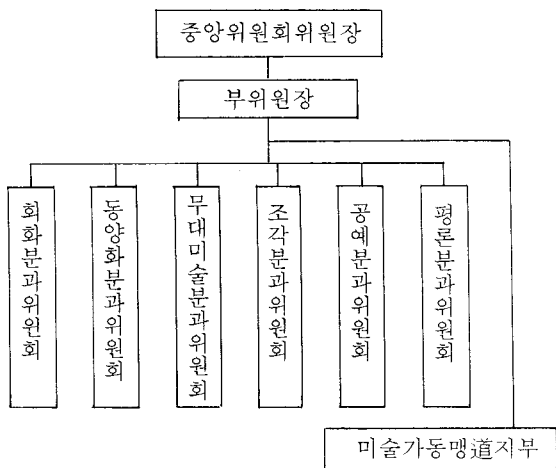
또한 북한에서 教師들의 教育指針書로 발간 배포한 「도화·공작 교수법」이라는 책자에 보면 아동들에게 도화교육을 실시하는 목적이 일차적으로는 도화를 통해 교육의 효과를 증진시키자는

데 있고 그 다음으로는 사물과 형상을 바로 관찰, 묘사하며 감상할 줄 아는 능력을 키워주고 아름다운 자연, 고유한 문화유산, 천리마의 기세로 내닫는 社會主義 조국에 대한 불타는 사상을 지니도록 하는데 있다고 하는 등 순수미술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사상교육에 목적을 두고 있다.

北韓의 美術家들은 조선미술가동맹에 가입해야 하는데 美術家同盟에는 회화, 조선화, 무대미술, 조각, 공예, 평론 등 6개 분과위원회가 있고 각도급에 지부가 조직되어 있다.

북한의 美術家同盟에는 書藝部門이 빠져 있는데 북한이라고 해서 서예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서예에 대한 인식결여, 정치선전면에서의 이용가치가 적다는 점에서 그 활동이 미약하기 때문에 하나의 독립된 분과위원회도 결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 〈조선미술가동맹〉



### 마. 映畫 및 演劇

영화, 연극은 다른 藝術分野에 비해 선전, 선동의 효과를 증진시키는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대상이다.

따라서 北韓은 이 부문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金正日의 영화에 대한 관심은 거의 맹목적인바, 여러가지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영화에 관한 김정일의 지식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87년 2월 24일 「朝鮮藝術映畫攝影所」 창설 40주년 기념집회에서 한 黨측하분에 의하면 북한에서 제작한 영화는 “당이 제시한 주체적인 영화창작이론을 철저히 구현, 인민들을 사상, 문화적으로 교양하고 투쟁과 혁신에로 고무, 추동하는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고 하고 있고 영화촬영소 총장인 백민은 보고를 통해 “김일성이 영화창작과 촬영소의 물질적, 기술적 토대를 일일이 보살피 주었고” 영화예술을 “주체가 선 혁명적 영화예술로 발전시킬 데”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었으며, 金正日은 “수령의 혁명위업을 계승발전시켜 영화예술부문에서부터 혁명적 전환을 이르게 나가도록 지시했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논조를 볼때 北韓의 영화는 金日成의 方針과 金正日의 지도에 따라 革命的 내용으로 제작되고 있다는 것인데, 최근에 제작되고 있는 영화들을 보면 이것이 엄연한 사실임을 알 수 있다.

'87年度 北韓에서 제작된 영화는 총 50편인데 이중 35편이 극영화이고 13편이 기록영화이며,

극영화 35편중에는 金日成父子를 주제로 한 것이 10편이고 對美·對韓 적개심 고취물이 7편, 체제 선전과 애국심 고취물이 7편, 나머지는 경제선동, 계급투쟁, 기타 등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선전매체들은 映畫에 대한 金正日의 관심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는데 그 내용은 金正日이 「朝鮮映畫攝影所」에 대한 실무지도를 지금까지 무려 320회나 했고 제작과 관련된 기술지도 회수는 2,200여회에 이른다고 한다.

이와같은 공식발표가 아니더라도 北韓에서 제작되는 영화는 모두가 시나리오로 부터 배역선정, 감독, 기타 제작과정, 심지어는 영화보급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金正日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金正日이 주도하여 만든 映畫에 자기 자신을 주제로하고 자신을 찬양하는 영화가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은 북한이라는 사회의 특수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金正日의 행적을 찬양한 映畫 「누리에 빛나는 향도의 햇발」, 「만대에 길이 빛나리」 등은 金正日

의 45회 생일에 즈음하여 제작, 北韓全域에 일제히 상영하였고 「인간에 대한 사랑의 송가」, 「보중」 등은 金正日이 직접 만든 映畫라고 소개하고 있다.

근래에 이르러 북한과 소련간의 친선관계가 더욱 밀접해지자 이에 발맞추어 映畫製作部門의 合作을 하고 있는데 '85년 1월 蘇聯의 최대 촬영소인 「모스필름」과 최초의 합작영화인 「영원한 전우 1,2部」가 완성되었고, '87년 12월에는 두번째 합작영화인 「봄부터 가을까지」를 제작중이라고 했다.

이 映畫는 45년 해방당시를 시대적배경으로, 소련군 간호원 「마리아 주까노프」를 주인공으로 韓朝·蘇革命關係를 테마로 한 것인데 1년동안 모스크바, 시베리아, 프리모아 등지에서 촬영을 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북한에서 상영된 映畫中에는 신상옥, 최은희씨가 北韓에서 제작한 「소금」, 「사랑 사랑 내사랑」, 「해아의 밀사」 등 11편이 가장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비교적 정치성, 사상

성이 적고 자유주의적인 색채가 풍기기 때문이라 보여진다.

영화에 비해 연극은 비교적 관심이 적은 部門으로 보여진다.

연극이 큰 빛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歌劇때문이라 생각되는데 북한의 演劇人들은 연극보다는 가극에 더 신경을 쓰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演劇은 무용, 노래 등을 곁들인 일종의 오페레타 성향을 띠고 있으며 북한측 발표에 의하면 연극이 大作 위주로 창작되고 있는데 「성황당」, 「혈분 만국회」, 「딸에게서 온 편지」, 「3인일당」 등이 대표작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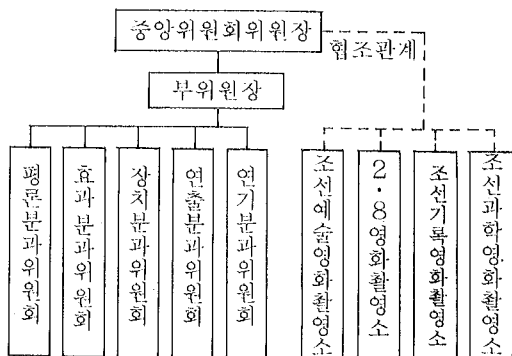
이들 演劇들은 모두가 金日成의 항일빨치산 시기를 배경으로 한 이른바 「革命演劇」으로서 金正日의 지도에 따라 새롭게 각색된 것이라 한다.

북한의 演劇 가운데 1978년도에 첫 공연을 가졌던 「성황당」은 현재까지 무려 1,500여회에 걸쳐 공연, 120만명이 관람했다고 선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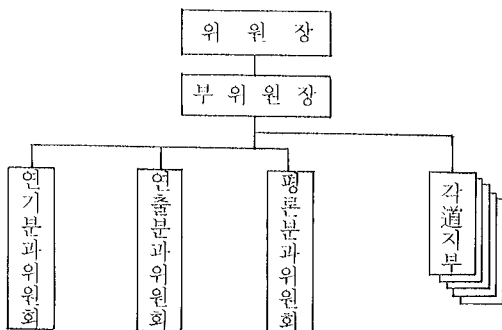
북한의 영화인은 「朝鮮映畫人同盟」에 가입되어 있고 연극인은 「朝鮮演劇人同盟」에 가입되어 있

는데 이들 各同盟에는 평론·연기·연출분과위원회가 있고, 영화인동맹에는 효과분과위원회와 조선예술영화촬영소, 2.8영화촬영소, 기록영화촬영소, 과학영화촬영소 등이 있다.

### 〈조선영화인동맹〉



### 〈조선연극인동맹〉





## 6. 맺음말

지금까지 북한의 문학예술분야에 대해 가끔적 특징적인 것을 중심으로 개관하여 보았다.

여기서 우리는 북한의 문학예술은 黨과 政權의 선전수단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순수예술성 표현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북한의 문예인들은 黨의 지시를 충실히 수행하는 문예인이라기 보다는 전문기능인에 불과하다.

이들은 他分野 종사자들에 비해 많은 특혜를 받고 있고 海外旅行의 기회가 많다는 점에서 가장 선망의 직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文藝人이 되려면 출신 성분으로 부터 성장과정 등 가장 어려운 심사를 거쳐야하고 다른 어느 직업인에 비해 사상적으로 투철해야할 뿐 아니라 金日成, 金正日에 대한 맹신적인 충성심을 지녀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문예인들이 상대해야 할 북한의 문예인들이 바로 이러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사전에 충분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1. 주요 공연 단체 및 시설 현황

## 가. 공연단체

### (1)연극단

#### (중앙)

단	체	명	인	원
국립연극단	연극단	180명		
평양연극단	연극단	120명		
평양청년연극단	연극단	80명		
중앙방송연극단	연극단	60명		
인민군연극단	연극단	80명		
사회안전부연극단	연극단	80명		
철도부연극단	연극단	80명		

#### (지방)

단	체	명	인	원
평양성시연극단	연극단	60명		
신의주시연극단	연극단	60명		
사리원시연극단	연극단	60명		
해주시연극단	연극단	60명		
개성시연극단	연극단	60명		
원산시연극단	연극단	60명		
합흥시연극단	연극단	80명	(적합시)	
청진시연극단	연극단	80명	(적합시)	
강계시연극단	연극단	60명		
해산시연극단	연극단	60명		
인민군각군단연극단	연극단	30~40명		

(2) 가극·가무·예술단

(중앙)

단 체 명	내역 및 인원
피 바 다 가 극 단	1971년 7월 17일 창립, 인원 380명
만 수 대 예 술 단	1946년 평양가극단으로 창립, 1969년 9월 27일 만수대예술단으로 개칭, 인원 약 300명
평 양 예 술 단	1972년 모란봉예술단을 평양예술단으로 개칭, 인원 약 300명
평 양 청 년 가 극 단	인원 약 200명
국 립 가 무 단	인원 약 200명
국 립 가 극 단	인원 약 200명
철 도 부 예 술 단	인원 약 150명
인 민 군 협 주 단	1947년 창립, 인원 약 180명
사 회 안 전 부 예 술 단	인원 약 150명
국 립 교 향 악 단	인원 약 150명
국 립 예 술 영 화 예 술 단	인원 약 160명
방 송 예 술 단	인원 약 160명
평 양 학 생 소 년 예 술 단	인원 약 300명

(지방)

단 체 명	인 원
평 양 북 도 가 무 단	80~90명
평 안 남 도 가 무 단	80~90명
황 해 북 도 가 무 단	80~90명
황 해 남 도 가 무 단	80~90명
강 원 도 가 무 단	80~90명
함 경 남 도 가 무 단	80~90명
함 경 북 도 가 무 단	80~90명
자 강 도 가 무 단	80~90명
양 강 도 가 무 단	80~90명
개 성 시 가 무 단	80~90명
해 군 협 주 단	80명
공 군 협 주 단	80명

나. 주요 공연시설(남북한 대비)

(1988년 기준)

北 韓	韓 國
○평양대극장 -敷地: 7萬5千m <sup>2</sup> 건축면적: 3萬m <sup>2</sup> -관람석: 2,300席	○世宗文化會館 -敷地: 1萬 8千 5百m <sup>2</sup> 건축면적: 5萬m <sup>2</sup> -관람석: 3,941席
○平壤巧藝劇場 -敷地: 5萬m <sup>2</sup> 건축면적: 1萬4千m <sup>2</sup> -관람석: 1,800席 (直徑 67m, 높이 27m 의 서커스 公演場)	○국립극장 -敷地: 5萬7千m <sup>2</sup> 건축면적: 3萬2千m <sup>2</sup> -관람석: 1,890席
○모란봉극장 -관람석: 1,000席	○잠실체육관 -建坪: 2萬6千m <sup>2</sup> -관람석: 12,750席
○水上館 -건축면적: 2萬5千m <sup>2</sup> -관람석: 6,000席 -形態: 圓錐形	○장충체육관 -垆地: 3千3百m <sup>2</sup> -관람석: 7,700席
○平壤學生 少年宮殿 -1,300餘 관람석의 극장 施設 具備	

## 2. 기관·단체별 인물현황

(1989. 2. 현재)

기관	또는 단체	직 위	성 명	비 고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부부장	金基南 김택성	
	문화예술부	○부부장	리상태	
정부원	문화예술부	○부장 ○부부장  ○영화총국장	張 澈 김정호 등 6명 권혁봉	
기 관	인민대학습당	○총장 ○부총장	전주남 리영창	
	평양학생 소년궁전	○총장 ○부총장  ○연출부장	김시범 류용택 등 2명 전학민	
	중앙도서관	○관장 ○사서장	함진숙 허정숙	
	조선예술영화 촬영소	○총장 ○부총장	백 민 김찬규 등 3명	
	조선기록영화 촬영소	○총장 ○제1부총장 ○해설원 ○처장	이경삼 리명제 박학영 리태환 송익수	직책불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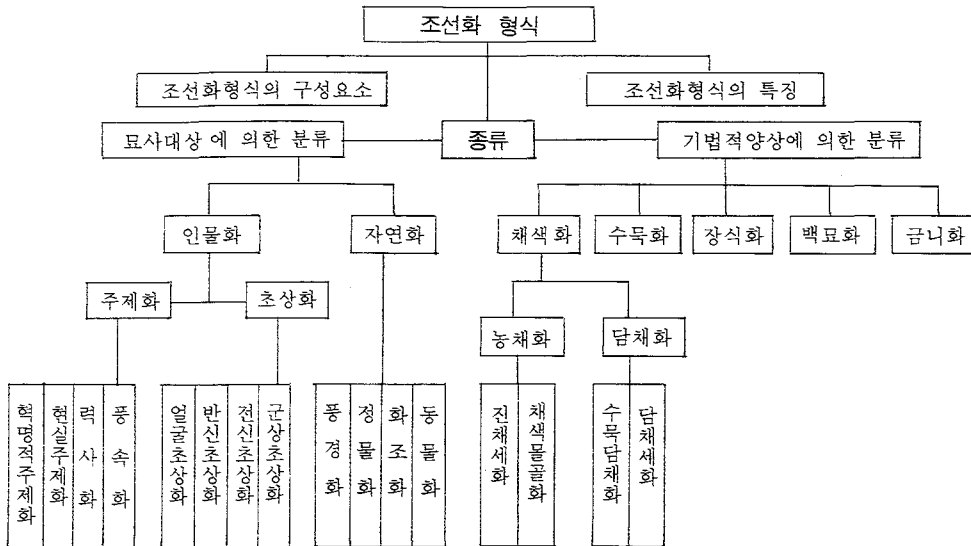
기관	또는 단체	직 위	성 명	비 고
	2·8예술영화 촬영소	○총장 ○부총장	장춘섭 추석봉 등 3명	
	조선과학교육 영화촬영소	○총장 ○실장	이하규 송덕암	직책불명
	대중과학영화 창작단	○단장	리성환	
공연단	평양예술단	○단장 ○부단장 ○총무	김정수 송수원 곽수동	1972창설 단원 : 300여명
	평양만수대 예술단	○단장 ○부단장 ○연출가	정춘환 김진영 김영희	1942창설 단원 : 300여명
	평양소년 예술단	○단장	김시범	
	평양학생소년 예술단	○부단장	송완수	창설연대 미상 단원 : 300여명 학생소년공전 (6,000석 규모)
	평양국립 교향악단	○단장	김정수	1964년창설 단원 : 160여명
	평양모란봉 예술단	○단장	박진후	모란봉 극장 (1,000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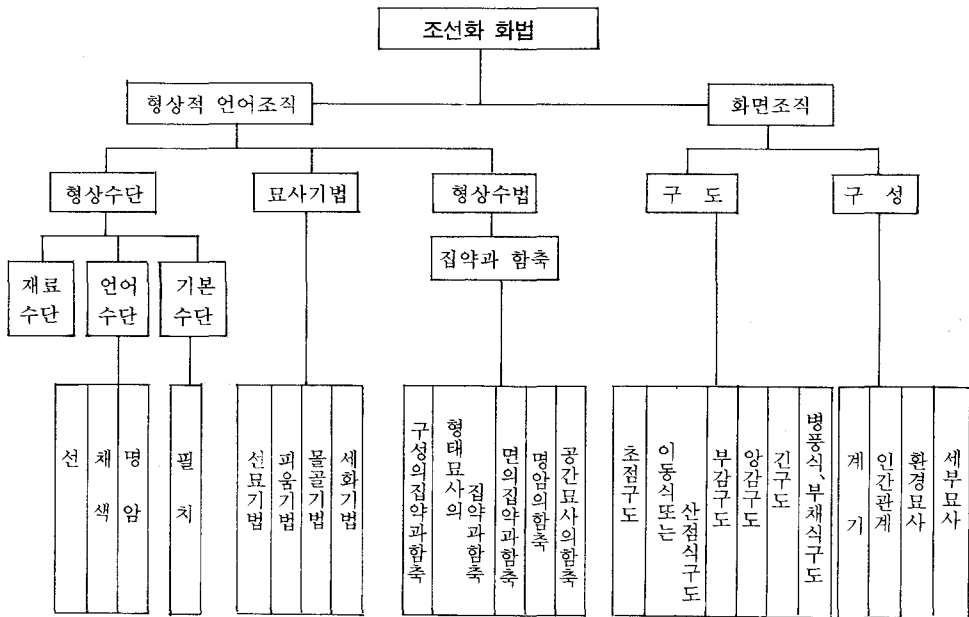
기관	또는 단체	직 위	성 명	비 고
	평양교예단	○단장	홍재식	1946년 창설 단원 : 180여명 평양교예극장 (1,800석)
	백두산창작단	○단장 ○부단장 ○연출가 ○촬영가	백인준 엄길선 엄길선 정의환	
	피바다가극단	○총장 ○부총장	석윤기 현승걸	1971년 창설 단원 : 300여명
	4·15문학 창작단	○단장 ○부단장	석윤기 현승걸	
	국립연극단 철도예술단 문화예술극장	○연출가 ○단장 ○부지배인	김동봉 박병섭 원종식	
	극장관리 위원 회	○부위원장	申應浩	평양대극장 (2,300석)
	조선영화 수출입사	○사장	최학래	
	영화과학 연구소	○소장	천두익	
단 체	조선문학예술 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백인준	



기관	또는 단체	직 위	성 명	비 고
	(산하단체)	○ 제1부 위원 장 ○ 지도원	최영화 박수일	
	조선작가동맹	○위원장 ○서기장	석윤기 리인직	
	조선음악가 동맹	○위원장 ○평론분과위 원장	李冕相 김득청	
	조선민족음악 위원회	○회장 ○서기장	金元均 강영희	
	조선공연협회	○회장	張 澈	
	조선미술가동맹	○위원장	정관철	
	조선연극인동맹	○위원장	李 丹	
	조선무용인동맹	○위원장 ○사무장	김재홍 리경룡	
	조선영화인동맹	○위원장 ○서기장	리종순 리봉수	
	조선사진가동맹	○위원장	高龍鎭	

### 3. 조선화 畫論





## 4.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 목차

(1975. 社會科學出版社)

### 차 례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독창적인 문예이론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고 있는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문예이론” ..... (1)
- 제 I 편 주체적인 사회주의 문학예술의 본성과 특징 (20)
- 제 1 장 사회주의적문학예술에서의 당의 유일사상 체계의 확립..... (20)
- 제1절 문학예술에서의 당의 유일사상의 구현.... (21)
- 제2절 혁명적문예전통의 계승발전..... (30)
- 제3절 문학예술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 ..... (40)
- 제 2 장 공산주의적인간학 ..... (51)
- 제1절 주체적인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은 참다운 공산주의적 인간학..... (52)
- 제2절 자주적인 인간의 전형창조는 공산주의적 인간학의 기본요구..... (58)
- 제 3 장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 ..... (71)

제1절	당성.....	(72)
제2절	로동계급성 .....	(78)
제3절	인민성.....	(87)
제4절	온갖 반동적문예조류 및 반혁명적 문예 사상과의 비타협성.....	(95)
제 4 장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예술의 사회주 의적 내용과 민족적형식.....	(103)
제1절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는 것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본질적 요구(104)	
제2절	사회주의적 내용.....	(110)
제3절	민족적형식 .....	(119)
제 5 장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의 사상성과 예술성	(129)
제1절	고상한 사상성과 높은 예술성의 결합.....	(129)
제2절	사상성.....	(137)
제3절	예술성.....	(146)
제 6 장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의 종류와 형태.....	(154)
제1절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에서의 종류와 형태 발전의 합법칙성.....	(154)
제2절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에서의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리용과 발전.....	(161)

제Ⅱ편 주체적인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의 창조…… (172)

제 7 장 문학예술작품의 종자…… (172)

제1절 종자는 문학예술작품의 기본핵…… (173)

제2절 종자의 파악과 예술적가공…… (179)

제 8 장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에서의 전형성…… (189)

제1절 전형화…… (189)

제2절 전형적 성격의 창조…… (198)

제3절 전형화와 갈등…… (208)

제 9 장 사회주의적 문학예술 창작에서의 속도전 (221)

제1절 속도전은 창작의 높은 속도와 질을  
다같이 보장하는 주체적인 창작원칙…… (221)

제2절 속도전은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시기의  
혁명적인 창작원칙…… (232)

제Ⅲ편 주체적인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의 창조자… (239)

제10장 혁명적 작가, 예술인…… (239)

제1절 작가, 예술인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240)

제2절 작가, 예술인들의 현실침투와 생활체험 (249)

제3절 작가, 예술인들의 예술적기량제고…… (257)

제11장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의 창조자로서의 인민대중.....	(265)
제1절	사회주의하에서 인민대중은 문학예술의 향유자이며 창조자.....	(265)
제2절	인민대중에 의한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의 발전.....	(271)

## 北韓의 文學藝術

---

1989年 4月 20日 印刷

1989年 4月 29日 發行

發行處 國土統一院 統一研修院

서울特別市 中區 獎忠洞2街 山5-19

電話：234-4102

---